

# 80년 5월 햇불...우린 색 빛내는 응원봉으로 맞섰죠

## “다름 속 하나됨, 응원봉은 MZ세대의 외침”

### 최현식 광주시청소년의회 부의장

“서로 다른 응원봉들이 ‘탄핵’이라는 하나의 외침 아래 모였던 특별한 경험, 그것이 바로 응원봉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식 광주시청소년의회 부의장(석산고 3학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집회에서 보여준 각양각색의 응원봉이 함께하는 모습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모든 연령층에게 깊숙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듯했다”며 “촛불이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을 보여줬다면, 응원봉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모든 세대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통합의 힘을 상징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개성·개인주의를 중시하는 MZ세대가 응원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역시 응원봉을 들고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냈던 과거의 기억을 통해 연대의 힘을 배우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 “나눔의 대동정신, 미래세대의 민주주의로”

### 이연아 전남대병원 노조 사무처장

“1980년 5월 햇불을 들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저마다 다른 색을 내는 응원봉으로 변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연아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사무처장은 “12·3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정국 속 응원봉은 단순한 응원 도구를 넘어 연대와 소속감, 개인의 가치관까지 담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에 맞섰던 5·18 정신이 21세기 계엄 상황과 맞닿아 MZ세대에게도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들을 위해 헌혈을 하고 주먹밥을 나누며 다같이 살아가는 대동정신을 실천했다”며 “45년 전 그 정신이 올 겨울 추운 광장에서 따뜻한 핫팩이 되고, 음식 선결제 문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운동권 세대의 민주주의를 지금의 MZ세대가 이어 받아왔다”며 “지금의 민주주의가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 “응원봉 문화, 공동체 정신 보여주는 상징”

### 정혜원 조선대학교 학생

“탄핵 정국에서의 응원봉은 탄핵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 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조선대학교에 재학중인 정혜원씨는 “응원봉은 촛불을 잇는 평화적 상징이자 2030 여성의 정치적 의견을 대변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저항함으로써 응원봉 문화(저항 정신)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5·18을 비롯한 수많은 저항이 있었기에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가 이뤄졌다”며 “응원봉 문화와 5월 정신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저항하며 나아갔다는 점에서 연결될 수 있었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것은 곧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그는 “불안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응원봉을 든 많은 사람들을 보며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며 “응원봉은 촛불을 대신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각기 다른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 오월영령들이 고이 잠들어 있다.

## “어두운 터널 밝혀준 응원봉은 빛의 혁명”

### 박윤오 금파공고 3학년

“응원봉은 단순히 좋아하는 대상을 응원하는 도구를 넘어 어두웠던 사회를 다시 밝힌 빛의 혁명의 상징입니다.”

박윤오 금파공고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해 12월 7일 광주총궐기대회에 참여했을 당시 급하게 가느라 LED 촛불을 들고 갔지만, 그 자리에서 한 선생님으로부터 응원봉을 건네받

았다”며 “그 응원봉을 들고 무대에 등장했을 때 참가자들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봉의 반짝임 덕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더욱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학업에 집중하느라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12·3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앞에서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함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응원봉은 MZ세대가



공동의 위기에 맞서 하나 된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응원봉 문화가 비상계엄을 막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것처럼 미래 세대도 응원봉이라는 빛을 들고 제2의 5·18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고 응원봉의 반짝임처럼 모든 국민들의 삶이 빛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수민 기자

## “응원봉, 5·18 정신 이어 새 시대 여는 빛”

### 노진성 동구의회 의원

노진성 동구의회 의원은 “응원봉은 5·18 정신의 현대적 계승이자 탄핵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며 “5·18은 그 자체로 진실이 어떤 탄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 빛을 발하는 명백한 대의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응원봉은 억압된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상징한다”며 “비상계엄은 5·18 정신에 대한 근본적 배신이며,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5·18이 추구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원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탄핵 이후 5월 정신은 MZ세대에



게 ‘민주주의는 승리한다’는 역사적 확신을 주었고, 또한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시대적 소명을 강조했다”며 “5·18이 추구했던 본질적인 가치들이 실현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며 헌법전문 수록이 되는 날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45주년 전남5·18민중항쟁 기념행사

Ah May, The May We Meet Again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기념식 5월 16일(금) 10:30 전남도청 문화제 5월 17일(토) 12:00 목포역 광장

518 전남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전라남도